

8/16(월) 다니엘 묵상 53
다니엘 12:5-1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시작된 네번째 예언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그 결국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천사와 다니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추정되는 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어느 때까지 입니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다니엘 곁에 두 사람이 강 이편과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이 강은 이 예언의 말씀이 시작된 히데겔 강(단 10:4)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곳에 서있던 두 천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둘 중에 한 명은 단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전달해준 가브리엘 천사로 추정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과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7절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강물 위쪽에 있는 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강물 위쪽에 있는 자’는 영어성경을 보면 ‘Above the waters of the river’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강 위에 공중 위에 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가 입은 ‘세마포 옷’은 계시록 19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세마포 옷이 ‘그의 아내’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에 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6절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것은 단 10:1-12:3절에 기록된 예언이 실현될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 10:1-12:3절의 내용은 바벨론의 쇠락, 페르시아의 흥망성쇠, 헬라의 발흥과 분열,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 사이의 전쟁,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환난과 성전 파괴,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의 환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과 형벌 등등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때 그리스도로 추정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이가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는 것은 최후 심판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계 1: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세를 가졌노니.”). 한편, ‘한 때와 두 때 반 때’에 대한 해석은 단 7장에서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 7장에서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이자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었습니. 이를 가리켜 역사주의자들은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 기간인 3년 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해석한 것같이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의 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질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다니엘은 또다시 질문합니다(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은사로 받은 다니엘조차 정확히 이해할 수 없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사실을 신비의 영역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정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다니엘에게 확실한

답을 해주는 대신 이와 같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로 하여금 더이상 시기에 관한 궁금증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의 삶을 충실하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환란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신해야 할 영적 자세에 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에 대한 교훈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약 1:2-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받는 성도들이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인내의 열매를 맺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12절은 이미 7절에서 언급한 때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록 시험의 기간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며 모든 인간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평안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목상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명확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몇 가지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불명확한 것은 환란의 기간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이것을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마 25장)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도적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벧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한편,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명백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역사와 환란 그리고 종말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한 환란을 당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과 죽음의 평안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고전 15:51-54,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날의 영광을 소망하며 묵묵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각 가정마다 복음의 바통이 잘 전달되어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을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햄튼 4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멕시코 이철남 선교사님, 가정,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